

선거법 재판 지연·검수완박 위반...어떤 답변 나올까

오는 21일 광주법원·검찰 국정감사

안도걸·정준호 의원 아직도 1심 중

수사 검사가 기소 '공소 기각' 망신살

내년 개원 회생법원 상황도 관심사

오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광주법원·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 현안에 대해 어떤 답변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법원 국감에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사범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4·10 총선과 관련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 상실' 기로에 선 광주·전남 주요 선거 사범은 정준호(광주 북구갑)·안도걸(광주 동남을)·신정훈(나주·화순)·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등 4명이었다.

이 중 신정훈·김문수 의원은 지난 7·9월 각각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군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경우 본인이 기소된 건 아니지만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

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위기를 맞았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선고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가장 빨리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반면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4·10 총선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상 강행 규정인 '6·3·3 선고'에 위배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선 1심 선고를 기소로부터 6개월 이내로 두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10월2일 공소장이 접수된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4월에 나왔어야 했다.

안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재기소'된 정 의원은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24일 지역 선거 사범 중 가장 먼저 기소됐으나 갈 길은 가장 멀다. 이는 광주지검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등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 기각이란 뼈아픈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이 재기소함에 따라 재판은 다시 진행 중이나, 정 의원 측에서 이중 처벌 금지 원칙 위반과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또 정 의원 측에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정

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중지돼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2026년 3월 개원 예정인 '광주회생법원'도 주요 현안이라 준비 과정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단장으로 한 준비단은 앞서 개원 로드맵과 사무실 공간 재배치 관련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구체적인 공간 재배치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주지법 본관과 2023년 12월 준공한 별관 일부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영 기자



‘정신과 꽃가게’ 세계정신건강의 날(10월10일)을 기념해 16일 광주 남구청 1층에서 정신건강 관련 팝업스토어 ‘정신과 꽃가게’가 열려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광주·전남 ‘캄보디아 실종’ 2명 신변 확인

각 1명씩...북부 20대·여수 30대

광주청 현지 소재 탐문 전단 제작

광주·전남 지역 ‘캄보디아 실종’ 추정자 중 2명의 신변이 확인됐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A(20대)씨는 자신의 부모와 SNS를 통해 전화했다. 올해 4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는 8월부터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전날 통화 당시 A씨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머물고 있는 장소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경찰 역시 A씨와 직접 통화하며 신변에 문제가 없다는 건 확인했다.

다만, 목소리뿐만 확인한 만큼 A씨에게 현지 대사관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대사관을 통해 A씨의 신변이 확보되더라도 행적 확인과 함께 현지 범죄 집단 피해·연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여수경찰도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돈을 벌러 가겠다고 출국한 B(30대)씨의 안전을 확인했다. B씨는 태국으로 출국한 후 올해 6월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나 여수경찰은 그의 지인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접촉했고 연락이

닿았다.

그는 가족과도 영상 통화를 하면서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알렸지만, 현재 무슨 일을 하는 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국내 체류 중인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현지 가족과 지인 등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소재 탐문을 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어로 번역한 전단지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캄보디아로 떠난 가족의 연락 두절 신고는 이날까지 광주 5건·전남 3건 등 총 8건이다. /안재영 기자

장석웅 前 도교육감 항소심 내달 13일 선고

지난 8회 지선 당시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원 확정판 피선거권 박탈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항소심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광주고법 형사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장 전 교육감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컨설턴트 B씨에게 각각 4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교육감과 A씨는 B씨에게 선거 컨설팅

등 명목으로 6천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일부를 지급했다.

이를 받은 B씨는 2022년 5월19·31일 장 전 교육감의 선거사무소에 거의 매일 출근해 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했다.

문제는 컨설팅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공식 선거운동비용으로 회계 처리 되지 않은 점이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업무 성적을 봤을 때 컨설팅 수당이 선거운동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장 전 교육감 측은 1심 판결 확정 시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 심수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과 공직선거법처럼 피선거권 박탈 문제가 있다며 전처리를 호소했다.

장 전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이뤄진다. /안재영 기자

어머니와 싸운 이웃 ‘상해치사’ 10대 실형

단기 1년·장기 2년...법정구속도

어머니와 다투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단기 1년·장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군의 어머니 B씨에겐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 오후 5시40분께 무안군 현경면에서 이웃 C(70대)씨를 수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당한 후 C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A군은 어머니와 C씨가 다투는 걸 보고 선순간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와 C씨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안면부를 2차례 가격했다. 이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5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